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2025년 11월

**기획재정부
김 상 엽**

I. 국외훈련 개요

1. 과정명 : 1+1 국내외 연계 과정
2. 훈련국 : 한국, 영국
3. 훈련기관명 : KDI 국제정책대학원 (KDI School)
리즈대학교 (University of Leeds)
4. 훈련과정 : Master of Public Policy (KDI School)
Master of Global Development (University of Leeds)
5. 훈련분야 : 경제정책
6. 훈련과제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7. 훈련기간 : 2024.1.3.~2024.12.25. (KDI School)
2024.12.26.~2026.1.26. (University of Leeds)

II. 훈련기관 개요

□ KDI 국제정책대학원

1. 개요

- KDI 국제정책대학원(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 및 교육을 위해 1997년에 설립
 - Master of Public Policy (MPP), Master of Development Policy (MDP), Master of Public Management (MPM), Master of Data Science for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MDS) 등의 과정을 운영중
- KDI School은 국제적 수준의 공공정책 교육을 제공하며,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학문적 교류를 촉진, 그간 전세계 143개국으로부터 7,300명 이상의 졸업생 배출
 - 특히, KDI School은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분야에서 Citation per Paper (논문당 인용수 부문) 전 세계 2위 기록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25)

2. 주소

- 주소 : 세종시 남세종로 263
- 이메일 : intladm@kdischool.ac.kr

3. 소속학과

- 과정명 : Master of Public Policy (MPP)

□ 리즈대학교

1. 개요

- 리즈대학은 1904년에 설립된 영국의 대표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영국의 24개 대학으로 구성된 Russell Group에 소속
- 세계적으로 우수한 학문적 성과와 풍부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약 37,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
 - 리즈대학교의 역대 노벨상 수상자는 총 6명*
 - * 물리학상(1915년 1명), 화학상 3명(1952년 2명, 1967년 1명), 문학상(1986년 1명), 평화상(2007년 1명)
- 리즈대학은 세계 대학 랭킹 82위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5), Development Studies 분야에서 세계 22위 기록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25)

2. 주소

- 주소 : Woodhouse Lane, Leeds, West Yorkshire, LS2 9JT, United Kingdom
- 이메일 : pgpolis@leeds.ac.uk

3. 소속학과

- 학과명 : Schoo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Studies (POLIS)
- 과정명 : MA Global Development

III.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성명	김상엽	직급	행정사무관
훈련국	한국, 영국	훈련기간	2024.1.3.~2026.1.26.
훈련기관	KDI 국제정책대학원 University of Leeds	보고서 매수	83페이지(학위논문)
훈련과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 제목	Driving South Korea's Economic Growth: Service Sector Productivity and Its Determinants		
내용요약	<p>I. 연구 개요</p> <p>최근 한국에서는 저성장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하나로 1970~1990년대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그간 GDP 성장률 및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7%대에서 2010년대 2~3%대로 하락하는 등 경제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더욱이 KDI 연구 (2022)에 따르면 향후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노동공급 감소 등으로 2050년 경제성장률은 0.5% 수준으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p> <p>현재와 같은 저성장 위기 국면에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산업은 농업, 어업, 임업 등을 포함하는 1차산업과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을 포함하는 2차산업과 구분되는 3차산업으로 불리며, 금융, 헬스케어, 도소매, 사회복지, 교육, IT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경제구조변화 이론에 따르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경제구조는 농업 기반에서 점차 제조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하는데, 실제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서비스업의 고용 및 생산 비중이 늘어나는 등 그 중요성이 커진다.</p> <p>한국에서는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의 60%, 고용창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고용비중 등은 선진국 대비, 그리고</p>		

<p>내용요약</p>	<p>국내 제조업 대비로도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2021년 기준 35개 OECD 국가 중 27위였으며, 국내 제조업 대비 생산성은 47.5%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 이처럼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서비스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준다.</p> <p>본 연구에서는 한국 서비스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해 한국의 저성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 38개 국가의 2002년~2022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대상으로 1)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 서비스산업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p> <p>II. 문헌 검토</p> <p>기존 연구에서는 국가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Solow 성장모델에 따르면 노동 및 자본 투입은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없으며, (총요소)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만 장기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경제성장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도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성 향상의 역할을 강조했고, 최근 한국 경제상황 분석 및 미래 경제전망을 다룬 연구들도 경제 성장동력으로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p> <p>경제성장을 위한 생산성의 역할을 강조한 연구들에 더해 서비스산업 발전 및 그 생산성 향상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연구들도 있다. 과거 Adam Smith, Thomas Malthus 같은 고전 경제학자들은 오직 상품 생산(제조업)만이 생산적인 분야이며 서비스 부문은 자원을 소비하는 비생산적인 분야라고 인식했으나, 이후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서비스산업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1980년대 경제의 서비스화를 먼저</p>
-------------	---

내용요약

겪은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등장했고, 그 후 2010~2020년대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서비스산업을 경제 성장동력으로 주목해 분석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게 됐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행정, 교통, 도소매 등 전통 서비스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금융, ICT, 통신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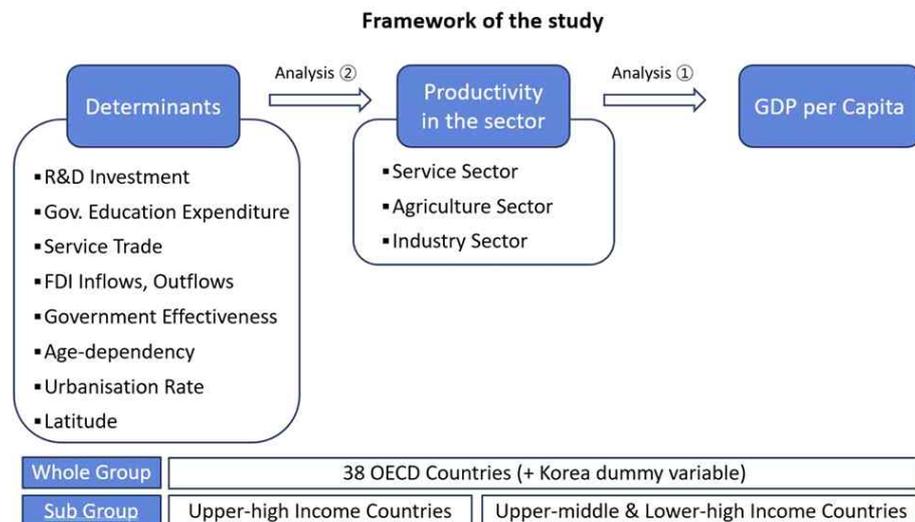
다만, 기존 연구에서는 1) 한국 서비스산업과 그 생산성이 경제 성장동력으로서 갖는 중요성과 2)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이 충분하지 않았다. 일부 연구에서 계량경제적 접근법을 활용해 앞서 언급된 부분들을 다뤘으나,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에 있어 R&D 투자, 정부 효과성 같은 지표가 포함되지 않았고, 서비스산업 생산성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 한국 고유의 효과를 포착하는 부분도 고려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또한 소득그룹별로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비교 분석하는 방법도 다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실증분석 방법과 근거를 추가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인 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활용한다. 1)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GDP per capita를 종속변수로, value-added per worker (productivity)를 설명변수로 두고 분석을 진행한다. 2) 서비스산업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value-added per worker를 종속변수로 두고, R&D investment, government education expenditure ratio, service trade ratio, FDI inflows & outflows ratio, government effectiveness, age dependency ratio, urbanisation rate 등을 설명변수로 둔다.

내용요약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OECD 38개국을 대상으로 2002~2022년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해 계량경제 분석을 진행한다. 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s) 회귀분석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국가 고유의 불변 특성과 연도별 공통 충격을 통제하기 위한 이중 고정효과 모형(two-way fixed effects model)도 적용한다. 또한, 내생성 문제(endogeneity concerns)를 완화하기 위해 시차변수(lag structure)도 사용한다. 또한, 앞선 기본모형 분석과 별도로 강건성 검사(robustness check)를 위해 시차변수를 확장해 분석하는 방법과, OECD 국가들을 소득수준별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도 진행한다.



1.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요약 편의를 위해 요약보고서에서는 수식 (1), (3) 설명 생략)

$$(2) \log Y_{ct} = \alpha + \beta_1 \cdot \log \text{Productivity-S}_{c,t-1} + \beta_2 \cdot \log \text{Productivity-A}_{c,t-1} + \beta_3 \cdot \log \text{Productivity-I}_{c,t-1} + \delta_c + \sigma_t + \epsilon_{ct}$$

이 모델에서 종속변수는 GDP per capita이고, 설명변수는 산업분야별 생산성이다. c는 국가, t는 연도를 의미하고, δ_c 과 σ_t 는 각각 국가와 연도에 대한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β_1 β_2 β_3 는 각각 서비스산업, 1차산업(이하 농업으로 지칭), 2차산업(이하 제조업으로 지칭) 생산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핵심 계수이다. 한편, 생산성 변수들은 t-1의 1기간 시차변수를 갖고 있다.

<p>내용요약</p>	<div style="text-align: center;"> $\log Y_{ct} = \alpha + \beta_1 \log \text{Productivity_S}_{c,t-1} + \beta_2 \log \text{Productivity_A}_{c,t-1}$ $+ \beta_3 \log \text{Productivity_I}_{c,t-1} + \beta_4 (D_{\text{korea}} \times \log \text{Productivity_S}_{c,t-1})$ $+ \beta_5 (D_{\text{korea}} \times \log \text{Productivity_A}_{c,t-1}) + \beta_6 (D_{\text{korea}} \times \log \text{Productivity_I}_{c,t-1})$ $+ \delta_c + \sigma_t + \epsilon_{ct}$ </div> <p>이 모델은 위 (2)번 모델에 한국 더미변수 D_{korea}(한국이면 1, 아니면 0)를 추가했다. 핵심계수는 $\beta_4 \beta_5 \beta_6$인데 해당 계수들이 음수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한국의 해당 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나라보다 작다는 의미이다. 반면, 해당 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면 한국의 해당 산업 분야 생산성 향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의미이다.</p> <p>2. 서비스산업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p>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text-align: center;"> $\log \text{Productivity}_{ct} = \alpha + b_1 \cdot \text{Servicetrade}_{c,t-1} + b_2 \cdot \text{FDIinflow}_{c,t-1}$ $+ b_3 \cdot \text{FDIoutflow}_{c,t-1} + b_4 \cdot \text{Education}_{c,t-1} + b_5 \cdot \log \text{R\&D}_{c,t-1}$ $+ b_6 \cdot \text{Urban}_{c,t-1} + b_7 \cdot \text{Age}_{c,t-1} + b_8 \cdot \text{Gov.Effectiveness}_{c,t-1}$ $+ b_9 \cdot \text{Latitude}_{c,t-1} + \delta_c + \sigma_t + \epsilon_{ct}$ </div> <p>이 모델에서 종속변수는 산업분야별 생산성이고, 설명변수는 서비스 무역비중, FDI 유입비중, FDI 유출비중, 정부 교육지출 비중, logR&D, 도시인구비중, 부양비율, 정부 효율성, 위도가 포함된다.</p> <p>IV. 연구결과 및 분석</p> <p>1. 기본모형 결과 (Baseline estimates)</p> <p>1)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p> <p>1-1) 기본모형 결과</p> <p>서비스산업 생산성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농업과 제조업 분야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비스업의 경우 생산성 1% 증가시 GDP per capita가 약 0.769%</p>
-------------	---

<p>내용요약</p>	<p>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 제조업 분야는 각각 0.045%, 0.309% 수치를 보였다. OECD 국가들의 지난 20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산업 생산성 증가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p> <p>1-2) 기본모형 결과 (한국 더미변수 추가)</p> <p>서비스산업 생산성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0.765%)이 다른 섹터보다 크다는 점은 앞선 분석과 동일하다. 또한, 한국 더미변수 분석 결과 한국의 서비스, 농업, 제조업 생산성 향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나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즉, 이 결과는 현재 한국의 서비스 생산성 수준이 다른 선진국 대비 또는 국내 제조업 대비 낮은 상황이지만, 서비스산업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다른 OECD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p> <p>2) 서비스산업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 기본모형 결과</p> <p>결정요인 분석 결과, R&D 투자, 정부 교육지출 비중, 정부 효율성, FDI 유입비중의 상승이 서비스 생산성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효과를 나타냈다. 그 외에도 R&D 투자와 정부 효율성은 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농업, 제조업 분야에서도 생산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정부 교육지출 비중은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 <p>반면, FDI 유출비중, 서비스 무역비중은 서비스 생산성 향상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서비스무역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서비스산업은 다양한 하위섹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하위섹터들 중 무역개방도가 낮은 섹터의 영향 등이 요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도시인구비중, 부양비율은 서비스산업 생산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p>
-------------	--

내용요약	<p>2. 대안적 모형과 강건성 검사 (Alternative specifications and Robustness checks)</p> <p>1) 시차변수 강건성 검사 - 2기간 시차</p> <p>앞선 기본모형에서는 1기간 시차변수를 사용했는데, 잠재적인 내생성 문제에 더 잘 대응하고,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그 효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2기간 시차변수를 적용해 분석을 진행한다.</p> <p>1-1)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p> <p>2기간 시차변수 적용 후의 분석결과는 1기간 시차변수의 주요 분석 결과와 부합한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다른 농업, 제조업 분야의 효과를 크게 상회한다. 또한, 한국의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다른 OECD 국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p> <p>1-2) 서비스산업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p> <p>2기간 시차변수 적용 후의 분석 결과는 1기간 시차변수의 주요 분석 결과와 부합한다. R&D 투자, 정부 교육지출 비중, 정부 효율성 등의 상승이 서비스 생산성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효과를 나타냈다.</p> <p>종합하면, 2기간 시차변수를 적용한 강건성 검사는 1기간 시차변수를 적용한 기본모형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p> <p>2) 소득그룹별 하위그룹 분석</p> <p>OECD 38개 국가를 소득수준별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한다. 그 이유는 국가의 소득수준,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앞선 분석의 효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p>
------	--

<p>내용요약</p>	<p>그룹 구분을 위해 OECD 국가들의 2023년 기준 GNI per capita 중간값(\$42,000)을 기준으로 하면 높은 소득과 낮은 소득 그룹에 각각 19개 국가가 포함된다. 중간값 대신 평균값(\$44,000)을 적용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한국은 OECD 38개 국가 중 22위로 낮은 소득그룹에 속한다.</p> <p>1-1)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p> <p>소득그룹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그룹 분석과 마찬가지로 두 그룹 모두에서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다른 농업, 제조업 분야의 효과를 크게 상회한다. 다만, 농업, 제조업 분야에서는 낮은 소득그룹과 높은 소득그룹간 효과의 크기 차이가 작은 반면(농업: 0.0300 vs 0.0487, 제조업: 0.3351 vs 0.3283), 서비스산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소득그룹간 효과 크기 차이를 나타낸다. 즉, 서비스산업의 낮은 소득그룹의 계수는 0.7760로 높은 소득그룹 계수 0.4672보다 크다. 이 결과는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의 경제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이 OECD 국가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그룹(한국 포함)에서 더 큰 점을 보여준다.</p> <p>1-2) 서비스산업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p> <p>결정요인 분석 결과, 낮은 소득그룹에서 R&D 투자, 정부 교육지출 비중, 정부 효율성 상승의 3가지 요소는 전체그룹 분석과 동일하게 서비스 생산성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효과를 나타냈다. 다만, FDI 유입비중은 전체그룹 분석과 달리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p> <p>반면, 낮은 소득그룹에서 부양비율은 서비스 생산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높은 소득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높은 소득그룹 국가들이 기술혁신이나 교육투자 증가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Gradstein and Kaganovich, 2003; Acemoglu and Restrepo, 2017).</p>
-------------	---

내용요약	<p>V. 결론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언</p> <p>1. 주요 내용</p> <p>본 연구는 지난 약 20년간의 38개 OECD 국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산업분야별 생산성과 GDP per capita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생산성의 향상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었다. 특히, 서비스산업 생산성 1% 증가는 GDP per capita 0.77% 증가와 연관됐고, 이는 제조업 부문의 효과보다 2배 이상이었다. 중요한 점은 서비스산업에서 이 효과는 OECD 국가 중 높은 소득그룹(0.47%)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그룹(0.78%)에서 더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과 같은 낮은 소득그룹 국가에서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 dummy 변수 분석을 통해 한국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또한, 본 연구는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서비스산업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요소들을 확인했다.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는 R&D 투자, 인적자본 축적에 기여하는 정부 교육지출, 민간의 경제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정부 효율성이다. 특히, 이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그룹보다 낮은 소득그룹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분석 결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낮은 소득그룹에서 서비스산업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높은 소득그룹에서는 부양비율과 서비스산업 생산성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선진국들이 기술 발전, 인적자본 축적 등의 노력으로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p> <p>2 정책제언</p> <p>앞선 분석 결과는 저성장 문제에 직면한 한국경제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❶ R&D 투자를 서비스산업에 재조정하고, ❷ 정부 교육지출의 효율성과 배분을 개선하며, ❸ 정부</p>
------	--

내용요약

역량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전략적 맞춤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한국경제의 장기 경제성장률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첫째, 현재 제조업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R&D 투자를 서비스산업에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OECD (2016)에 따르면 한국 R&D 지출 중 약 90%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산업 비중은 7%에 불과한데, 이는 OECD 평균인 38%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이다. 서비스산업에서 낮은 R&D 집중도가 낮은 생산성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에 초점을 둔 R&D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이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요하다. 특히, 향후 헬스케어, 금융, 디지털 콘텐츠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AI 기술 등 영역에서 기술력 확보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한국 정부 교육지출이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현행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21%를 지방재정교부금 형태로 초·중등 교육에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체계는 줄어드는 학령인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KDI (2021)에 따르면 OECD 대비 한국은 고등 및 평생교육에는 투자가 부족한 반면, 초·중등에는 과잉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 교육지출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AI 대전환 등 산업 수요에 맞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 역량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혁신, 재정관리 효율성 제고, 규제개혁 등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정부 실행력, 디지털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공공부문의 혁신성 저하나 재정사업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시장지향성을 높이고 혁신노력을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공공부문 관리를 강화라고,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향후 예산 배정 간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연구원 연구 (2014)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다른 분야보다 과도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민간 부분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역량 강화와 함께 서비스산업 부문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